

플랜B 없는 김봉길호, 벤치 순발력부터 키워라

위기의 U-23대표팀, 변해야 산다

무딘 화력·영성한 뒷문 완패의 원인 벤치 전술 부족...작전 막히면 '노답' 8월엔 AG, 조직력 다질 리더십 중요

이보다 더 우울할 수는 없다. 김봉길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23세 이하) 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을 4강에서 마감했다. 26일 카타르와의 대회 3·4위 결정전이 남은 가운데 김 감독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를 끝이곧대로 듣는 이는 없다. 이미 파장 분위기다.

한국은 23일 큰 참사를 겪었다. 연장 접전까지 이어진 우즈베키스탄과 4강전에서 무기력한 플레이로 일관해 4-1로 대패했다. 공교롭게도 앞선 8강에서 일본도 4-0으로 우즈베키

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더욱이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베트남이 아름다운 기적 스토리를 계속 만들며 결승까지 올라 상대가 더 깊어졌다. 김 감독과 박 감독은 과거 K리그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을 놓고 경쟁했던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도 박 감독이 한 발 앞선 모양새다.

결과론은 물론,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국이 3승(1무1패)을 챙겼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부분에서 기대 이하였다. 무딘 화력과 영성한 뒷문 탓에 모든 경기에서 답답했고 짜증이 나게 했다.

골키퍼 강현무의 수많은 선함과 3골을 뽑은 이근호(이상 포항 스틸러스)가 아니었다면 1차 목표인 4강조차 버거웠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모든 선수에게 전염된 듯한 무거운 몸놀림 탓에 그나마 잠점이던 투지조차 사라졌다.

무엇보다 벤치의 전략이 부족했다. 명쾌한 철학과 방향이 없었으니 처음 구상한 플랜이

잘 풀리지 않으면 선수들은 90분 내내 허둥거리기만 했다. 상대는 철저하게 우리를 대비하는데 우리 벤치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전에서 먼저 집안단속을 철저히 한 뒤 결실을 취하는 카운터어택을 선택했으나 첫 골을 일찍 허용해 팀 전체에 불균형이 찾아왔다. 상황이 달라지면 골장 내놓아야 할 플랜B는 아예 없었다. 선수단의 부족한 사기를 끌어내고, 없었던 의지를 심어주며 그라운드에서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하는 것이 벤치의 역할인데 U-23 김봉길호는 이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선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동안 공식적인 U-23 대표팀 사령관 선임에 대해 여러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형태의 계약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U-23 챔피언십에서 우선 능력을 확인한 뒤 성과에 따라 8월 2018카타르아시아게임까지 맡기겠다는 복안이었다.



23일(한국시간) 중국 쿤산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AFC U-23 챔피언십 한국-우즈베키스탄의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GK 강현무가 상대의 슈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다.

다행히 김 감독은 아시아게임까지 계약했다. 상황에 따라 2020도쿄올림픽까지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와르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 카타르전은 우리의 스타일을 보여 주겠다"는 코멘트를 여쭙서 이토록 많은 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롱하는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23일(한국시간)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하노이의 명소 호안 까엠흐 호수 주위로 모여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AFC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 결승전에 진출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베트남의 국가 금성송기를 흔들며 경력을 올리면서 축구팀의 선전을 축하했다.

거리 뒤덮은 베트남 국기·오토바이 경적소리...2002월드컵 한국 연상

베트남 탄호아 만나는 수원

정해성 감독이 전한 베트남 현지 표정

10년전부터 국가가 육성한 선수들 주축 U-23 대표팀 AFC 주관 대회 첫 결승행 아침식단 바꾸고·정신력도 180도 개조 언론들도 박항서 감독 지도력 대서특필



정해성 감독

총감독을 맡고 있는 정해성 감독은 "정말 난리가 났다"고 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0월 박 감독과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 진출했다. 정 감독은 "우리 팀 코치들 얘기로는 아마도 몇 명은 죽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면서 "농담으로 한 소리지만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어제(23일) 저녁에는 베트남 전역이 길거리 응원을 한 듯하다. 베트남 국가 금성송기가 길거리를 뒤덮었다. 운동장에서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다. 거리에선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요란했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언론이 다 축구 얘기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2002년 월드컵의 한국에 버금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상상하면 된다"며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높은 관심을 보이는지를 설명했다. 정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박항서 감독과 함께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한 코치였다. 그때의 분위기와 느낌을 잘 안다.

정 감독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남자 4만명 모이면 축구 이야기와 내기 문화가 특징이라고 한다. 그만큼 축구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번 대회 이전까지 U-23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모든 관심이 쏠리는 대표팀에 집중됐다. 이유가 뭘까.

정 감독은 "지금 U-23 대표팀은 10년 전부터 정적으로 육성한 선수들이다. 국가에서 투자를 하며 키운 선수들이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관심도 높다. 이번 대회에 나선 주축들이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회에 관심이 쏠렸고, 승승장구하는 성적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바 베트남의 황금세대들이다. 정 감독이 맡고 있는 HAGL 소속 선수도 무려 6명이나 된다. 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클럽에서도 주전으로 뛰고 있다. 가능성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선수들이다. 정 감독은 "1998년 월드컵 이후 이동국 고종수 안정환 등 젊은 선수들 덕분에 K리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떠올려보면 된다. 지금 베트남은 그런 젊은 선수들 때문에 축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언론들은 한국지도자를 집중 분석해 보도하고 있다. 축구 실력과 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한국지도자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정 감독이 베트남 클럽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단을 바꾸는 일이었다. 베트남 선수들이 아침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면 종류(라면, 국수 등)라고 한다. 그런 음식으로 축구경기에서 체력적으로 버텨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단을 바꾸면서 훈련이나 경기 모두 좋아졌다고 한다.

대표팀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신적으로 응집력을 키운 게 주요했다. 대표팀 또한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U-23 대표선수들은 성인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현지 분위기는 22~23세의 선수들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주축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10년간은 이들이 베트남 축구를 이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축구에 이제 베트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의 당부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30일 홈서 ACL 32강 걸린 한판

수원 삼성의 2018시즌 첫 공식전 상대가 결정됐다. 공교롭게도 요즘 아시아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베트남의 팀이다.

수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 경기를 갖는다. 상대는 베트남의 FL C(홍콩)와로 결정됐다. 지난해 베트남 V리그 2위를 차지한 탄호아는 23일 홍콩에서 열린 이스턴SC(홍콩)와의 대회 2차 예선전에서 4-2로 승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수원-탄호아 경기의 승자가 ACL 32강 조별리그에 합류한다.

이 경기를 위해 다른 팀보다 일찍 시즌준비에 들어간 수원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ACL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왔다. 준비시간이 짧아 해외전지훈련도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팀을 가다듬었다. 주로 대학팀들과 연습경기를 하면서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수원은 5차례 연습경기를 치렀는데 한 수 아래의 대학 팀들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으며 모두 이겼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수원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선수 데얀과 바그닝요는 많은 골을 기록하며 빠른 적응력을 자랑했다. 데얀은 홍익대를 상대로 무려 5골을 넣기도 했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홍콩에서 열린 탄호아-이스턴SC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상대 전력을 파악했다. 24일 귀국한 서 감독은 25일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에 훈련을 재개한다. 수원 선수단은 24일 제주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클럽하우스로 복귀했다. 최근 한파가 몰아닥쳐 훈련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대로 훈련을 강행할 방침이다. 수원 관계자는 "어차피 탄호아와 경기를 치르는 날도 추울 것으로 보인다. 서 감독이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하며 추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감독에게 고마움 전한 베트남 특집원 광하이

"스스로를 믿게해 준 박항서 감독님 생큐"

중국 장쑤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이하(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의 기적'이 연일 화제다. 베트남은 23일 창저우 올림픽센터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AFC 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분에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59) 감독을 향한 찬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임 3개월여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팀을 결승으로 이끈 박 감독은 지금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베트남의 주득점원 응우옌 광하이(20)는 4강전 직후 인터뷰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다. 감독님은 매 경기 우리가 스

로를 믿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U-23축구대표팀이 이뤄낸 기적의 결승행에 호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도시는 난리가 났다.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뛰어나와 환호하고 오토바이 또는 차의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2002한일월드컵 당시 전국을 붉은 물결로 덮었던 우리나라를 연상케 한다. 2002년의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 축구팬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다. 지금 유튜브에는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을 응원하는 우리 팬

들의 동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당연히 결승전에서의 선전도 기대한다.

광하이 "4강전에서 우리가 승리한 순간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없었다.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 이런 업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니 행복하다. 우리는 계속 집중할 것이고 자신감을 유지해 결승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승전 각오를 말했다. 진심으로 지금의 베트남이 부럽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